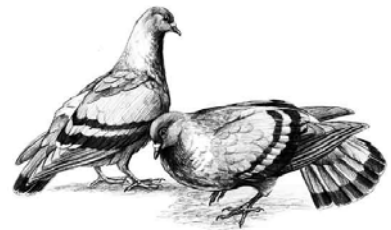


## 비둘기의 탄생과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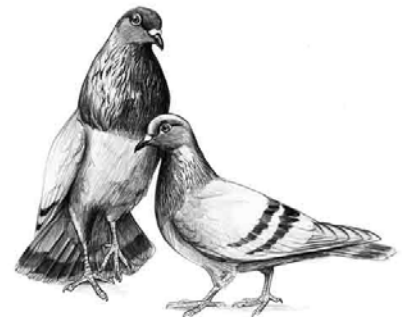
부화한지 8개월에 접어드는 젊은 비둘기(주비나일 : Juvenile), 이들은 그동안 둥지에서 밀려나 그들끼리 야외의 틈 같이 그저 바람만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잠을 청해왔다. 이제는 그들도 짝을 만나 둥지를 틀고 번식을 할 시기이다. 2달이 지나면서 이미 사춘기를 넘은 청소년처럼 덩치는 어미들과 비슷해져 있었다. 그러나, 아직 제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실정으로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나가는 법을 터득해 왔다. 이제 몸도 환경에 적응하는 법도 제대로 준비가 된 것이다.

그동안 무리 내에서 보아왔던 맘에 드는 상대를 맞아야 한다. 수컷 비둘기는 짝짓기 이전에 암컷과 같이 살 둥지를 찾느라 분주히 다닌다. 바닥은 편평하고 은폐되어 있으며, 비와 바람 등을 잘 막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 일단 둥지 공간을 확보하면 적극적인 공세가 시작된다. 구애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먼저 수컷은 자신의 목의 깃털을 부풀리고 (puff out), 머리를 숙이고, 암컷의 주위를 돌면서 여러번 인사와 같은 행동(bowing)을 한다. 그리고 꼬리를 펼치며 암컷의 뒤를 쫓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꼬리를 땅에 질질 끈다. 주변의 다른 젊은 비둘기들이 이들의 애정행각에 질투를 느끼고, 방해하려 한다. 수컷은 암컷의 뒤를 따라다니며, 암컷이 다른 수컷을 멀리하도록 몰고 다닌다. 암컷은 자신의 부리(bill/beak)를 수컷의 부리 속에 넣는다. 그리고 암수가 함께 울동있게 움직이며, 자신들의 머리를 상하로 움직인다. 이 같이 부리를 이용한 애무(billing)은 짝짓기(mating) 직전에 행해진다. 이제 본격적인 짝짓기다. 암컷은 몸을 낮추고, 수컷이 그 위에 올라탄다. 수컷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날개짓을 한다. 수컷은 암컷 위에 몇초간 머물며 짝짓기를 한다. 짝짓기 후 수컷은 자랑스러운 모양으로 약간 날아오르며 2~3회 뒤로 날개짓을 한다. 이때 날개짓 소리를 낸다. 이로서 성스러운 짝짓기는 마무리 된다. 짝짓기 후 수컷은 암컷을 자신이 마련해 놓은 둥지 공간으로 몰고 간다. 이러한 짝짓기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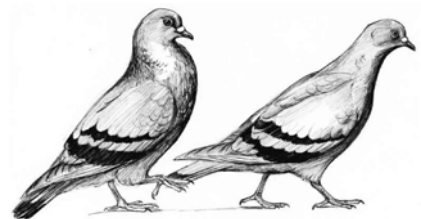
이제 조금 있으면 태어날 새끼들(알)을 위한 둥지를 지을 차례이다. 수컷은 열심히 돌아 다니며 마른 섬유질, 잔가지, 지푸라기 등을 물어 온다. 암컷은 그 공간 내에서 둥지를 틀 적당한 공간을 물색하고(주변에 남이 짓다만 둥지를 호시탐탐 노려본다), 수컷이 물어다 주는 재료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둥지를 짓는다. 처음 지은 둥지는 엉성하기 짝이 없다. 편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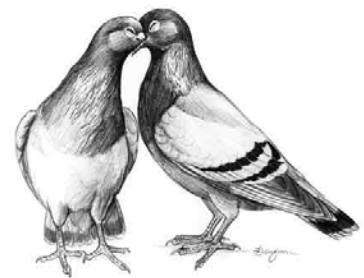
인사하기(Bowing)



꼬리끌기(Tail dragging)



몰기(driving)



부리아무(billing)

한 바닥에 나뭇가지와 지푸라기, 그리고 깃털 등이 엉성하게 놓여있고, 그 위에 배설물이 약간 떨어져 엉성한 틀을 겨우 엮고 있다. 이렇게 해서 둠판의 둠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둠지는 지속적으로 배설물이 쌓이면서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게 된다. 이 과정에서 둠지의 재료들이 보충된다.

짝짓기 한 후 7~10일째, 둠지 내부가 매우 산만하다. 초산인 암컷은 매우 불안한 모양으로 이리저리 오간다. 수컷도 암컷을 따라 분주하다. 이런 산만함이 지난 간 후 암컷은 아름다운 하얀 알을 한개 낳게 된다. 한개의 알(약 17g)을 낳은 후에도 암컷은 알을 품지 않고 주변에서 서성거린다. 아직도 들췌를 낳지 않은 것이다. 첫 번째 알을 암수가 교대로 지킨다. 24시간 또는 40시간 이내에 두 번째 알을 낳게 된다. 비로서 초산의 기쁨을 느끼며, 소중하게 알을 품기 시작한다.



짝짓기(mating)

아침(오전10시경)부터 이른 오후(오후 4시경)까지 주로 수컷이 알을 품는다. 그 외의 시간은 암컷이 알을 품게 된다. 그 기간 중 암수 어느 한쪽이라도 죽게 되면, 알은 부화하지 못한다. 지속적으로 포란되어야 하는 알이기에 먹이활동을 하러 나가야 하는 어미의 입장에서 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홀로 된 어미 비둘기는 무리 내에서 새로운 짝을 찾게 된다.

이렇게 소중하게 알을 품은지도 어언 16~18일, 새하얀 알 한구석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새로운 생명이 세상과 만나려는 발버둥이다. 이러한 발버둥은 24시간 이어진다. 결국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세상에 나타난다. 그러나, 아직 눈을 못뜨고, 누르스름한 털을 덮고 있는 털보숭이 형상이다.



갓 태어난 새끼 비둘기

갓 태어난 새끼들에게는 ‘피죤밀크(pigeon milk : crop milk)’라는 특별 유아식이 제공된다. 암수 모두에게서 생산되는 피죤밀크는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줄 면역성분도 함께 들어있다. 피죤밀크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CROP’이라는 먹이 저장/소화기관의 안쪽 양벽의 외부 세포가 비대해지면서 생겨나는 액체상태에 가까운 젤형태이다. 초기 어린 새끼들은 어미들로부터 피죤밀크를 먹을 것을 강요 받는다. 그러나, 후에 새끼들은 소란스럽게 울고, 날개를 퍼떡거리

며 먹이를 구걸하게 된다. 암수 모두에게서 제공되는 이러한 피죤밀크는 새끼들을 놀랄만큼 빨리 자라게 한다. 36~48시간 이내에 새끼들은 최초로 부화할 때 몸무게의 두배가 된다. 그리고, 4일 후 다시 그의 두배가 된다. 몸의 길이도 덩달아 두배가 된다. 이 시점에서 먹이가 변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연한 곡물을 섞어 먹이기 시작하면서 점차 거친 곡물까지 섞여 먹이게 된다. 7일째 되는 새끼에게서 어미들이 먹는 거친 먹이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쯤 되면 등에 두줄의 어두운 색 깃털이 나타나게 된다. 18일째부터 날개와 등쪽에 깃털이 덮이기 시작하여 21일째에 온 몸에 깃털이 덮이게 된다. 그러나 아직 꼬리가 보이지 않는다. 꼬리까지 완전하게

깃털이 덮이는 것은 몸무게가 최대에 달하는 28 일경이다. 이렇듯 4주째에 달하면 어미의 몸무게 보다 더 많이 나가는 놈도 나타나게 된다. 피존 밀크의 제공도 이쯤을 기해 끊어지게 된다. 이전 까지 먹이를 전적으로 어미에 의존했던 새끼들은 이제는 어미를 따라 먹이와 물을 먹는 법을 배워야 한다. 수컷은 새끼들을 데리고 나는 연습을 시킨다. 짧은 거리에서 시작해서 점차 먼 거리를 날게 한다. 이러한 비행연습이 진행된 후 먹이와 물을 먹는 법을 가르친다.



태어난 지 3일된 어린 비둘기

비둘기의 먹이 습성은 주로 곡물을 먹는 이나 벌레와 동물성 먹이 등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는 잡식성으로 바뀌었다. 먹이 섭취량은 대략 자신 몸무게의 1/10정도를 먹는다. 일반적으로 20g~60g의 먹이를 섭취하고, 상태에 따라 100g의 먹이를 섭취하기도 한다. 비둘기는 하루 섭취량의 먹이를 수분 내에 먹을 수 있다. 이는 그들의 먹이 저장소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하루 물 섭취량은 대략 36~60ml 정도이다. 다른 조류와 특이하게 다른 점은 물을 먹을 때 나타난다. 다른 조류들은 부리로 물을 머금고 고개를 쳐들어 삼키는 방식을 취하나, 비둘기는 부리를 물에 대고 빨대와 같이 빨아서(Suction) 먹을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갓 태어난 시기에 액체 상태에 가까운 피존밀크 빨아 먹는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생후 3주된 새끼

새끼가 부화한 후 4~6주째, 새끼들에게 드디어 독립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수컷 어미로부터 비행과 먹이 습득 훈련을 마친 새끼들은 냉정하게 둥지로부터 쫓겨난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어미들은 종종 이 시기 직전에 짝짓기를 하고 새로운 알을 낳기도 한다. 특히, 봄과 가을에는 이러한 산란이 집중되고, 11월부터 2월까지의 산란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먹이 조건이 풍부한 서식지에서는 사시사철 산란이 지속된다.



다 자란 비둘기

쫓겨난 새끼들은 무리 내에서 자기 또래끼리 모여 생활 한다. 둥지를 짓지 않고 그들의 어미가 그래왔던 것과 같이 그저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수면을 취한다. 7~8주째가 되면 어미와 덩치가 같아진다.

둥지에서 쫓겨난 일부 새끼들은 무리에서도 쫓겨나게 된다. 무리가 점유하고 있는 영역의 수용

능력을 넘은 개체들은 무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 무리에서 쫓겨나는 일순위가 바로 이들 젊은 비둘기(주비나일 : Juvenile)가 되는 것이다. 무리에서 쫓겨난 비둘기들은 새로운 영역을 찾아 나선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비둘기들은 독립 생활을 하기도 한다. 새로운 영역이 풍부한 서식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계속해서 다른 비둘기 찾아들게 될 것이고, 무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들은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무리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환경의 변화 특히 먹이 혹은 둥지를 틀 수 있는 공간의 크기에 변화가 생기면(줄어들면) 무리의 젊은 비둘기들은 무리에서 쫓겨나게 된다.